

군중속의 고독

.....도서관 경영 체험기.....

김 문 현
(진주시립 연암도서관장)

(1) 전국공공도서관대회

69년 5월 14일 전국공공도서관대회가 이곳 진주에서 개최되었다. 마침 소속청이 진주시 교육청에서 진주시로 이관되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대회 준비를 위한 한편의 예산도 손에 쥐지 않은 채 날자가 닳아 왔다. 대회 며칠전 진주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전입되었으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도교육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때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도서관계 인사는 40여명을 넘지 못했다. 개최식은 400여명의 좌석이 있는 문화관에서 갖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문화관을 들어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서관계 인사들은 회의장이 예상외로 넓은데 약간 남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예정시간이 되자 400석 좌석에 약 300여명이 자리를 잡았다. 약 260여명의 엑스트라가 출연한 가운데 전국공공도서관대회는 막을 연 셈이다. 4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내고장에서 전국공공도서관대회의 선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초라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기념강연을 맡은 교대 김용태 학장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교육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단 260여명을 특별출연하게 함으로써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식은 화려하게 그 서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 오후에 도서관 회의장에서 오붓하게 도서관인만 모여 연구발표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이 숫적으로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 아니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거창한 주제 발표 때에 1년 6개월간의 체험기를 두서없이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었다. 조용히 경청하는 회원들도 의아심과 진지함이 뒤섞여 얼룩진 표정들이었다. 이를동안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반가운 손님들이 떠나자 또 한번 나는 허탈감에 빠졌다. 도서관대회행사 준비에 든 빛을 어떻게 해서 청산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2) 소속청 이양

전국공공도서관대회에 지출된 비용은 2개월이 되어도 해결의 전망이 없었다. 도교육위원회에 올려 놓은 추경예산의 승인이 끝나야 지출될 수 있으므로 신발이 많도록 교육청을 드나들면서 추경승인이 내리기를 학수고대 해야만 했다. 7월경에 뜻 밖에도 진주시범도서관 지정이라는 무거운 소식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해지고 지도협력과 신학균 과장님이 지정패와 기증도서를 갖고 내관하셨다. 진주시장님께 기증도서를 전달하고 지정패를 부착하고 시범도서관제도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8월중순경 전국도서관대회때의 경비 일부를 겨우 청산하고 공식적인 사무인제도 없이 의붓자식 같은 도서관은 시청으로 그 소속을 옮겼다. 교육장 발령으로 출발했던 직원들은 당분간 무소속 공무원이 되었고, 진주에서 발령결치의 요식행위가 끝나기까지 직원들에게 쥐꼬리만한 봉급마저 2개월동안이나 지불되지를 못했다.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맛보면서 관장이란 감투를 쓴 죄로 이자돈을 내어 우선 직원봉급을 지불했다. 이자리를 틀면서 이 고비를 넘으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고 악착스레 참기로 했다. 어디 SOS 신호를 보낼 곳도 없었지만 창피스러워서 꼭 참기로 했다. 당국에서도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악착스레 정권(?)이 이양되는 바람에 우리는 애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공원 앞 장사하는 할머니가 빌려준 돈이 우리 도서관의 초창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니 도서관주간에 표창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교육청, 시청을 오가지 않고 시청 한곳만 드나들게 된 것만도 딱 다행이었다. 사무적, 행정적인 면에도 우리 도서관은 70년 8월부터 새출발하게 된 셈이다. 문화계장, 공보실장이 도서관업무담당 장관이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불평없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새로 부임하신 이상희 시장님께서 도서관육성을 위해서는 소속관청이 일원화되어 하루 속히 발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용단에서 취해진 조치로 71년도에 정상화 될 것을 기대하고, 이까짓 고생쯤 하며 견디었던 것이다.

교육장님과 시장님이 거의 동시에 바뀌었을 때 나는 교육장님께 사표를 제출하고 시장님께는 7개항목의 도서관운영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새로 부임하신 이상희 시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시청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서 직접 내가 제출한 건의서를 하나 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나의 건의내용을 전적으로 찬동해 주시면서 취해주신 조치이므로 수술 때의 아픔은 완쾌후의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견디어 낸 것이다.

(3) 뜻밖의 산타크로스

이러한 고난중에서도 뜻 밖에 산타크로스가 무더운 8월에 찾아왔다. 당 도서관의 설립 기증자이신 고연암 구인회 선생의 뒤를 이어 럭키재벌의 회장이 되신 연암문화재단 구자경 회장이 내관(8월말경)해 주신 것이다. 처음으로 도서관을 둘러 보시고 현황을 들으신 후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시면서 텔레비전 1대와 건물 내부공사를 지시하시고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시면서 금일봉을 주고 가셨다. 그후 10월 한달동안 도서관은 건물 내부공사관계로 휴관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관내 업무를 위해서 계속 출근하면서 실외와 기대의 1개월을 보냈다. 상경하신 구회장님으로부터 도서관장서가 빈약하고 운영면에서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도서관운영기금 170만원의 거액을 기증하시겠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참고 견디며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스틸과 모험에 찬 몇달을 보내고 오늘의 도서관을 갖게 된 것이다.

(4) 생일 찾은 소년

도서관 내부공사가 끝나고 개관준비에 분주했다. 그러는 중에 도서관 창립 2주년 때에 먼저 약속해 주신 본관운영 기금을 구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다는 감사한 소식이 날아 들었다. 없는 가운데서 또 잃어버릴번한 창립 두툼 잔치를 갖게 되었다. 도서관이 생기고 처음으로 비중있는 유지 기관장님들이 아동열람실에 가득 참석하고 조출한 우리 도서관의 두툼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회갑기념으로 도서관을 지어 고향사회에 바친 연암 구인회 선생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끝났을 때 너무나 열숙해진 분위기에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기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려고 등단한 구자경 회장도 흐느끼를 억제하지 못해 인사말을 채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흐느끼는 부녀자들도 있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한동안 숙연해진 분위기에서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1970년도 저물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산은 중간에 시(市)에서 과도적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너무나 고통이

많았다. 그런 역경속에서 직원들이 잘 참고 인내해 주었다. 이제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린다.

(5) 대망의 71년도

우리를 모두가 70년대를 대망의 시기로 맞이했는 것과 같이 우리도서관도 1971년을 기대와 의욕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로 맞았다. 그러나 무소속공무원이든 직원들이 시(市) 소속공무원이 되었다가 새해를 맞으면서 해임되었다가 또 임명되는 서글픈 서러움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은 역전의 용사처럼 의욕이 부풀어 있었다. 정식 티오신청을 내기만도 7개월동안, 무려 수십차례 관계서류를 만들어 내는데는 이제 익숙한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형식같은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불모의 여건속에서 어떻게 전국시범도서관으로서의 창의적인 운영을 수행하여 무관심하던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느냐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시에 소속된 후 행정체계에 대한 모순과 티오배정 요청에 관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연암문화재단이 지원한 운영기금으로 우리 도서관은 민간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이한 시립도서관으로 직원들은 일찌 단결하여 계획된 사업을 과감히 추진해 갔다.

(6) 창의적인 도서관 경영

도서관의 행동반경은 곧 도서관장을 비롯한 직원의 행동반경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꾸준한 자기연수와 부단한 노력으로 71년도의 도서관 운영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새해 아침을 맞았다. 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강화 ② 효율적인 경영체제와 합리적 경영관리 ③ 시범도서관으로서의 시설 및 자료확충 ④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립 및 공동사업추진이란 4대목표를 71년도 중점운영목표로 정하고 치밀한 세부계획을 세웠다. 1월 15일부터 어린이 겨울학교 개설을 필두로 도서관의 대시민봉사 활동은 그 테이프를 끊었으며 방학중의 어린이와 학부모는 라디오의 방송을 듣고 도서관을 노크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의 방학생활지도와 독서생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음악, 미술, 동화, 문예, 독서, 영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7일간 계속된 어린이 겨울학교는 뒤 늦게 접수를 못해 안타까와 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독서연맹에서 보내준 직강순회문고함이 도착하자 시청 아카시아 독서클럽을 선두로 순회문고가 설치되었고 구세군교회에 에덴문고, 교도소에 생명문고, 기독교아원에 새싹문고, 도립병원에 나이팅게일문고, 그밖에 글샘, 에밀, 쥬피타, 아카데미 등 독서 클럽이 서서히 조직되고, 매월 1회 독서클럽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연암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구입한 시청각기재는 매주 월요일 휴관 때마다 월요음악회와 슈퍼터학생음악회로 고전음악감상회가 개최되었다. 종래 폐가식으로 열람하던 서고를 완전계가식으로 전환하여 열람좌석을 늘리고 3월부터 어린이 토요일학교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참고도서를 완비하고, 참고사서를 확보하여 전화, 서신질의응답의 본격적 참고업무를 개시하였다. 신문에 매주 신간서평을 게재하고 매월 중요활동상황을 메스컴을 통하여 PR 하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범시민적인 독서운동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내리춤에 빠지기 쉬운 직원들을 격려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위하여 주변관장제 실시와 매월 필독서 독후감 발표 등 연수회를 갖고 자질의 창의적 운영과 실적을 평가하는 직원관리를 대담하게 시도했으며, 도서관 자질의 활동실적과 전체적인 통계가 신속하게 취합되고 게시되는 합리적인 업무조직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밖에 다른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립과 공동사업 추진을 특색있는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명실공히 생활정보센터, 사회교육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의 이미지를 시민속에 불어넣기 시작했다. 각종 단위 독서클럽을 지도하는 연암독서클럽협의회가 독서운동을 주관하고 월요음악회, 일요그림회, 세고비아클럽, 아카데미클럽 등 각종 후원클럽이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속에 활발한 문화행사를 전개하는가 하면 BBS 청소년 회원들도 매월 2회 도서관에서 BBS 전주진양지구 주관으로 교양강좌를 가지며 청소년선도센터로서 복지사회구현의 기본적 생활정보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도서관의 문고도서를 통하여 교양을 넓히고 새사회의 예비군으로서 독서에 여념이 없고 독서클럽회원들은 꼴을 나르기 위해 분주히 드나드는 꼴벌처럼 책을 교환해 가고 있으며 월말이면 도서이용현황을 보고하고 월회비를 적금하여 그 일부를 도서기금으로 도서관에 납부하고 있다. 이제 겨우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서관으로서의 원시적인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을 즈음 이러한 뜻 있는 사업을 뒷바침 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과 예산상의 뒷바침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갑작스레 엄습하는 피로와 마음 아픔에 피로워하곤 하였다.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도서관의 밤" 행사 프로그램이 도서관 직원이 아닌 후원클럽의 주요멤버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작성되고 당 도서관의 도서관주간 행사계획의 일부가 각종 메스컴과 긴밀한 유대속에 공동으로 작성되고 있다는데 호뭇함을 느낀다. 그러나 일에 몰두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조리한 현실적 여건을 피부로 느낄 때 마음은 잠시 혼란해 짐을 느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투에서 잠시 휴식의 나래를 펴고 착잡한 심정에서 그간의 발자취를 거뒀없이 여기 옮겨 보았다. 우리도서관계에도 이제 곧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海外學術雜誌購讀案内

KOP Subscription Guide

⇒敝社는 国内唯一의 셉스크립션; 에이전시로서 文化公報部의 許可(第50号)를 얻어 外国定期刊行物 予約業務를 開拓하여 왔으며 數年間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傘下 輸入代行機關입니다.

對內的으로는 여러가지 惡條件을 克服하고 業務擴張에 따른 能率的인 事務体制를 이룩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屈指的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 1,500餘社와 業務를 提携. 老대한 海外 셉스크립션. 네트워크를 形成하므로써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 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數量의 多寡를 不問하고 購讀者 諸位의 셉스크립션 인포메이션 리퀘스트에 応하고 있어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즉시 案内齣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日本書籍販賣案内《

⇒今般 敝社는 日本 丸善株式會社와 代理店 계약을 체결하고 建築設計資料集成 시리즈를 独占 販賣하고 있어오니 고객제위의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書名	著者名	出版社名	日 價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一卷	丸善 編	丸 善	¥ 3,0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二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三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四卷	丸善 編	丸 善	3,7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五卷	丸善 編	出 版 中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六卷	丸善 編	準 備 中	
		丸 善	4,800

(기타 建築・土木關係書籍 多量 販賣中)

 丸 善 株 式 會 社

韓國總代理店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鍾路1街 71 永韓빌딩

雜誌 業務部 74-3783

書籍 販賣部 73-4262